

**PRESSBOOK**

**MADSAKI**

*Art in Culture*

*February 2018*

## FOCUS 크리틱

### ‘즉흥’이라는 마법

매드사키展 2017. 11. 15~1. 13 갤러리페로탕 서울  
배운환展 2017. 12. 20~1. 27 갤러리바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고, 유독 숨가쁘게 열렸던 ‘현재들’의 시공은 새까만 과거 속에 들어가 묻혔다. 아직 비어있는 백지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받아 든 어색한 기분으로 한 해는 그렇게 또다시 시작됐다. 그러한 찰나에도, 2017년과 2018년으로 나뉘는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연속하는 시공으로 있는 어느 때의 평범한 일상은 개개인의 타임라인을 타고 지속됐다. 그리고 여기, 나를 시간의 터울을 매끈하게 넘긴 2개의 전시가 있다. 갤러리바톤에서 열린 배운환의 여섯 번째 개인전 <숨 쉬는 섬>과 갤러리페로탕 서울 전시장을 통해 한국에서는 첫 개인전을 열게 된 일본작가 매드사키(MADSAKI)의 <Bada Bing, Bada Boom>이다. 지난 연말에 시작한 두 전시는 새해 첫 달로 이어지면서 절묘하게 동시대미술의 여러 장면들과 겹치는 가운데 개별 작가로서 두 사람의 행보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배운환은 2014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린 <Was It a Cat I Saw>전을 비롯해 주로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을 모색해온 문화재단이나 국공립미술관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주목을 받으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그렇다면, 이번 전시는 갤러리바톤의 전속작가로서 배운환이 겪은 하나의 전환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인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매드사키는 카이카이키갤러리(Kaikai Kiki

Gallery) 소속 작가로서 무라카미 다카시의 열렬한 지원과 후광을 얻으며 거침없는 활동을 한껏 과시해왔다. 이번에 갤러리페로탕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는 그의 첫 행보도 같은 연장에 있다.

#### 우연과 상상의 캔버스

비슷한 시기에 열린 배운환과 매드사키의 전시는 나란히 놓고 고개를 돌려가며 보기에 꽤 흥미로운 점들을 서로 함축하고 있다. 언뜻 표면으로 내비치는 시각적인 효과들이 서로 가깝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두 작가의 그림 그리는 행위에서 드러나는 각자의 관심과 선택은 끊임없이 상이한 맥락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닿을 수 없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말해준다. 둘은, 일련의 드로잉 선을 강력한 표현의 수단으로 삼아 그것을 매우 유연하고 특색 있게 다루었다. 한눈에도 둘의 그림에서는 각자의 손이 그려낸 선의 궤적이 지속적으로 꽤 중요한 시각적 효과를 발산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드로잉을 위해 그들이 고집스럽게 선택한 매체가 있는데, 이는 각각의 그림에서 매우 중요한 물리적 지지체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예컨대, 배운환은 주로 목판이나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즉흥적으로 연상되는 형상을 덧붙이며 빈 캔버스를 거침없이 채워나간다. 이번 전시 제목과 동명의 작품인 <숨 쉬는 섬>(2017)은 폭이 8m가 넘고 높이도 3m 가까이 되는 대형 그림이다. 가로 길이가 무려 50m나 돼 전시장에 다 펼쳐놓지 못했던 <Was It a Cat I Saw>(2014) 이후, 그는 일련의 서사를 담고 있는 큰 그림을 여러 방식으로 시도해왔다. <숨 쉬는 섬>에서도 그렇듯, 배운환은 캔버스 왼쪽에서부터 시작한 그림을 오른쪽으로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예정된 각본 없이 즉흥적으로 구축되는 이미지의 흐름과 그 이미지가 단편적으로 엮어내는 느슨한 서사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섬으로 비유한 빈 캔버스 위에 그날그날 떠오르는 생각의 단상과 일상의 장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림이 끝나갈 때쯤, 그 섬은 누군가가 키를 잡고 항해하는 거대한 배였을지도 모를 마술 같은 장면으로 전환된다. 그가 캔버스의 평면을 목판과 오일파스텔로 채우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 그는 즉흥적인 상상을 통해 연상되는 형태들로 캔버스를 가득 채우고, 그것이 스스로 임의의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어느 때부터인가, 특히 그는 그 거대한 캔버스와 사투를 벌이듯 스스로 그림 그리는 행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끈질기게 다루었다. 구체적인 예로 몇 해 전

매드사키 <Melting Pot II> 캔버스에 아크릴릭, 에어로졸 120×120cm  
2017. 매드사키는 갤러리페로탕 서울에서 열린 한국 첫 개인전 <Bada Bing, Bada Boom>에서 신작 15점을 선보였다. 작가는 영화의 한 장면이나 만화 캐릭터, 유명회가의 초상이나 그림 등을 소재로, 스프레이를 과감하게 분사한 거칠고도 섬세한 화면을 만든다.



개인전에서 한쪽 벽면을 크게 채웠던 <그래도 들개 같이>(2015)를 떠올려볼 수 있는데, 이때 그는 그림 그리는 행위와 그 결과물로서의 이미지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전시 제목 또한 <능구렁이 같이 들개 같이>로, 미술계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억제하며 전략적으로 생존해가는 능구렁이와 시스템 바깥에서 그것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들개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는 나'의 모습은 무엇과 같은가/같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하려 했던 그의 속내를 엿볼 수 있었다. 이제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온 배운환은 <숨 쉬는 섬>을 통해, 현실에 대한 마술적 상상의 원천으로서의 '섬' 혹은 현실과 거리를 두며 끝없는 수평선을 향해 항해하는 '배' 안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과 그 역할을 상상한다. 그리고 이때 그에게 주어진 거대하고 텅 빈 캔버스는 '숨 쉬는 섬'으로서 현실 바깥에서 현실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길어 올리는 망루와도 같다. 그가 이 작업의 배경에 대한 참조로 제시한 이탈리아 칼비노(Italo Calvino)의 소설 <나무 위의 남작(Il Barone Rampante)>(1957)에 대해 듣게 되면 그러한 정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빈 캔버스인 평면을 채우는 방식에 있어서, 매드사키도 매우 즉흥적인 태도를 취하긴 마찬가지다. 배운환이 목탄으로 검은 얼룩을 남기며 드로잉을 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흔적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처럼, 매드사키 또한 흰색의 캔버스에서 느껴지는 중압감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슬랭 같은 낙서로 캔버스를 더럽히기 시작했다. 매드사키는 미국으로 이민 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파슨스 디자인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뉴욕에서 킥 배달을 하면서 바스토머스(Barnstomers) 그룹에 가담해 활동하면서 미술(계)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생각해보게 됐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그에게 독특한 정체성의 기반으로 작용했는데, 무엇보다 작가로서 그림 그리는 행위에 대해 그가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복합적인 태도는 그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돼있다. 그의 이름에서 'Mad'는 '많은' '엄청난'의 뜻을 가진 슬랭에서 따온 것인데, 매드사키는 뉴욕에서 킥 배달을 할 때 자신에게 "매드 사키 마사키 가자"며 친구들이 부르던 별명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타이틀로 삼았다. 2004년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 그는 스프레이를 이용한 일명 '옥 그래피티'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전시의 제목 <Bada Bing, Bada Boom>도 일종의 슬랭 같은 문구이자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말로, 그의 작업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다. 그는 스프레이로 빠르고 쉽게 거대한 흰색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때 즉흥적으로



사방에 분사되는 이미지의 잔해 같은 것에 주목한다.

#### 이미지와 서사를 다루는 태도

이처럼 매드사키가 노골적으로 드러내듯, 그의 그림은 초기부터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그래피티의 문법을 크게 차용하고 있다. 그는 익숙한 캐릭터나 슬랭 문구 등을 활용해 스프레이로 강렬한 이미지를 재빨리 그려넣는다. "이보다 더 쉬울 수 있을까." 그가 종종 하는 말이다.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었던 <Andy Warhol Flower> 연작처럼 그는 잘 알려진 미술작품을 그대로 본떠 스프레이로 쉽게 흉내 내기도 하고, <Melting Pot>(2017)처럼 일본과 미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뒤섞어 화면 가득 배치해 중간 중간 의미 없는 육설을 적어 넣기도 했다. 그 밖에도 잘 알려진 미국 고전영화의 여러 장면을 다룬 최근의 신작을 포함해, <Bada Bing, Bada Boom>에서는 공허한 이미지와 언어의 표피를 끊임없이 모방하며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지극히 가볍게 소비하는 매드사키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여러 사회적 층위에서 이미지와 언어를



배운환 <숨 쉬는 섬> 캔버스에 아크릴릭, 오일파스텔 270×880cm(부분) 2017. 배운환은 목판이나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상상한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캔버스에 펼쳐나간다. 이 작품은 빈 캔버스를 섬에 비유해 그날그날 떠오른 생각이나 장면을 담은 대형 회화다.

소비하고 생산하는 일련의 집단적인 공유 방식에 빈번히 노출되어있었던 탓에, 그것을 몸에 밴 습관처럼 자신의 작업 안에서 계속해서 모방하며 유희하는 손쉬운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보같이 맹목적으로 표피만 흉내 낸 허술한 이미지는, 그야말로 아무런 서사 없이 이루어지는 이미지에 대한 집단적이고 순간적인 공유를 강하게 환기시킨다.

한편 배운환은 늘 이미지와 언어 혹은 이미지와 서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형상을 화면에 옮기지만, 매드사키처럼 집단적으로 공유된 이미지를 빠르고 쉽게 참조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 이면에서 캔버스 위로 미끄러져 나오는 순간적인 이미지를 긴 시간에 걸쳐 힘겹게 쏟아낸다. 그래서 그 검은 선들로 완성된 이미지는 빠르게 공감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익숙한 형태들이 아니라,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미지의 함의와 그 서사의 간극에 대해 상상해야만 한다.

이번 전시에서 <숨 쉬는 섬>과 그 맞은편에 비슷한 크기로 제작된 <수천 길 바닷속>(2017)을 같이 놓고 볼

때, 배운환이 이미지와 서사를 각각 구축해내는 일련의 방식에 대해 우리는 짐작해볼 수 있다. 서로 다른 그림이 마주보며 섬과 바닷속이라는 공통의 환경을 만들어 낼 때, 이미지들은 그 안에 잠재되어있던 서사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운동성을 얻게 된다. 요컨대 그는 이미지와 서사가 놓일 시각적 구조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각각의 이미지와 서사가 서로를 가로지르며 거대하게 구축되어가는 역동적인 상황을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큰 그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일련의 나무 구조물 위에 드로잉 한 작업들 역시, 애초에 그 구조 안에 잠재되어있던 이미지와 서사의 가능성을 살피는 작가의 태도를 역력히 보여준다.

/ 안 소연